

그림 : 윤계향 프란치스카(부산가톨릭미술인회)

## 연중 제21주일

**제1독서** 이사야서 22, 19~23

**화답송** 시편 138(137), 1과 2나, 2가과 3, 6과 8나 (© 8나 참조)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1.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섰드리나이다. ◎
2.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3.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2독서** 로마서 11, 33~36

**복음환호송** 마태 16, 18 참조

◎ 알렐루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복음** 마태오 16, 13~20

**영성체송** 시편 104(103), 13~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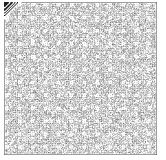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이 주간의 축일

♣ 27일 : 나르노, 다윗 루이스, 루포, 리체리오, 마르가리타(맹발의), 마르첼리노, 만네아, 모니카, 베드로, 사비니아노, 세라피온, 시아그리오, 아론시오, 안투사, 에우탈리아, 요한, 체사리오, 카르포포로, 포르투나토, 포이멘, 호노라토, 후고



#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찬미 예수님. 팔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당신의 수난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하심에 앞서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들을 목격한 군중들이나 단지 소문으로 전해 들은 유대인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여느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느님께서로부터 파견받으신 예언자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들을 지켜봤던 제자들,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답합니

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칭호는 예수님께서 단지 많은 예언자들 중의 한 분이 아니라,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정을 아시고 그분께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느님께서로부터 파견되신 유일한 분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고백에 대해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깨우쳐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히십니다. 오늘 복음 대목 다음 장(17장)에 나오는 거룩한 변모 장면에서도 빛나는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심으로써 거듭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을 아는 정도의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뉴스나 언론매체들을 통해 유명 인사들을 안다고 해서 그들을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신 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 보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장 세 명  
안드레아 신부  
괴정성당 주임

## 지금 여기

### 혼자라는 것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이제 축복은 감당해 내야 할 엄청난 고독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 했던 익숙한 모든 것들로부터 혼자되어 외로움과 쓸쓸함을 견뎌내야 하는데 이는 서로 나눠 가진 비밀보다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친구가 없다는 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Busan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rporation

부산 FM 101.1 MHz 울산 FM 94.3 MHz 녹산 FM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8.28(월)~29(화)  
장세명 신부(괴정성당 주임)  
8.30(수)~9.2(토)  
유연창 신부(영성의집 제2부원장)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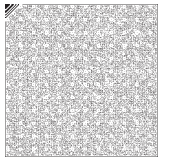
문자참여 #2340

8.29(화) 함께 하는 여정  
출연 : 인도네시아 욱야카르타 아시아 청년대회(AYD) 참가 청년들

다정 다감 다섯시  
월~금 17:00~18:00

진행 : 유기환 아나운서  
8.30(수) 건강하게 삽시다  
출연 : 김철홍 바실리오(메트로 적추병원)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황 규 하 이나시오

올해는 '자선의 사도이자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빈첸시오 성인께서 성령의 은총으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신지 400주년(1617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 부산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도입 50주년(1967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과 동료 6명이 그의 스무번째 생일날(1833년 4월 23일)에 모여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활동하기로 마음을 모아 빈첸시오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숨결, 전통,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기도 중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스무 살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용돈을 아껴 식권을 사서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갔으며,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시작한 이웃사랑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27년

만인 1860년에 2,500개의 협의회와 5만 명의 활동회원으로 불어났으며, 현재는 전세계 140개국에 62,000개의 협의회와 80만 명의 활동회원을 갖고 있는 교회 내 자생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최초의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교구는 현재 37개 본당 협의회에서 활동회원 500여 명과 후원회원 2,500여 명(비신자 포함)이 매년 정성껏 모금한 4억여 원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 위로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의 복지 사각지대엔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이 많이 파괴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보이지 않는 가난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어두움을 드리우고 있어 우리의 활동으로 미약하나마 이에 적극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청년과 노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즉 빈첸시오 성인의 영성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이웃사랑의 실천도장이며,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뵈고 모시는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아멘.

■ 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장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도입 50주년 기념 워크숍 및 미사

일시 : 9/9(토) 09:20~17:00 장소 : 부산가톨릭대학교 베리타스관 강당  
미사 주례 : 황철수 주교 / 강사 : 김명섭 신부(광주교구 지도신부), 최규상 웃음전도사  
대상 : 후원회원, 활동회원 그 외 관심 있으신 모든 교우님들 / 문의 : 051-441-4339(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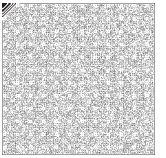
### 환경과 생명 어디에나 모세의 떨기나무가!

아직 물러가지 않은 여름의 불볕더위 가운데 아침저녁으로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조금씩 비치는 입추(立秋)가 지나고, 극성을 부리던 모기 입이 비뚤어지고, 맹위를 떨치던 풀들도 힘을 잃는다는 처서(處暑)를 맞이하고도 나들이 즐겼습니다. 채가지지 않은 더위가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만, 세상 만물 안에서 찬란히 빛나는 창조주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작가 앨런 와이즈먼은 참으로 독특하게도 '인간 없는 세상 연대기'를 구상하면서 인간이 사라지고 20년 후가 되면 고가도로를 지탱하던 강철 기둥이 물에 부식되면서 휘기 시작하고, 파나마 운하가 막혀 남북 아메리카가 다시 합쳐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겨 먹던 발작물의 맛이 지금 같지 않은 야생종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입맛에 맞게 개량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리라 추측했습니다. 결국 하느님의 창조신비는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조작으로도 감출 수 없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면 우리는 지금 진정한 창조주 하느님의 신비, 창조의 감추어진 맛, 참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을 주도한 모세가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 떼를 치며 목격한 하느님의 신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불에 타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신발을 벗어 하느님의 거룩한 신비에 예배한 모세의 체험(탈출 3, 1-5 참조)이 과연 우리에게 불가능할까요? 19세기 영국의 시인 엘리사벳 바렛 브라우닝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땅은 하늘로 가득 차 있다. / 모든 덩불은 하느님으로 불타고 있다. / 그러나 이를 보는 이들만이 그들의 신을 벗는다." 감추어진 창조주 하느님의 신비를 목격한 모세의 체험은 결코 그만의 것이 아니며, 자연 만물 안에서 그분의 숨결을 찾는 이는 누구나 그것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인위적인 신을 벗고 자연 속에서 온몸으로 주님을 느낄 여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 2017 여름 신 앙 학교



서면



성가정



수정마을



당리



사상



삼산



성바오로



사직대건



물금



구포



석포



초장



삼계



전하



괴정



방어진



우동



온천



천곡



동향

4 · 연중 제2주일

♣ 30일 : 가우덴시아, 루몬, 마르가리타 와드, 베드로, 보노니오, 보니파시오, 실바노, 아다옥토, 아르세니오, 요안나 유간, 테클라, 판티노, 팜마치오, 펠라지오, 펠릭스, 피아크리오



## 오륜대순교자성지, 시복 3주년 기념행사

우리 교구 복자인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 순교자가 복자품에 오른 지 3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6일(수) 오륜대순교자성지(담당 : 전수홍 신부)에서 ‘시복 3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이날 신자들은 시복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성지에 안장된 순교자 8위의 묘지를 참배했다.

수홍 신부는 “3년 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복자품을 받은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그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성인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오륜대순교자성지 담당 전

## 동래성당, 장학금 수여식



동래성당(주임 : 예정출 신부, 회장 : 박영표 루치오)은 지난 8월 15일(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중에 주일학교 중, 고등학생 4명, 교리교사 1명, 청년회원 1명, 추천 학생 1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성당은 본당 활동에 열심히, 봉사심이 투철한 학생, 학비나 등록금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8월 15일(화) 주임 : 김대아 신부, 회장 : 이수봉 세례자요한



8월 20일(일) 주임 : 임영민 신부, 회장 : 최상기 라파엘

## 축하합니다



우동, 교회의 어머니 Pr. 1,000차 8월 2일(수) 우동성당 설립 이래 첫 1,000차 주회 주임 : 전동기 신부, 단장 : 김정희 요안나



망미, 천주의 성모 Pr. 2,000차 8월 16일(수) 주임 : 정영한 신부, 단장 : 정병숙 안나



초장, 성인들의 모후 Pr. 3,000차 8월 16일(수) 주임 : 이창신 신부, 단장 : 배근식 파비아노



##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루카 10, 38~42)에서 말씀만 듣는 마리아가 열심히 시중드는 마르타보다 더 좋은 몫을 택했다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바라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타는 시중들기 위해 “분주”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마르타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야단하십니다. 이와 달리 마리아는 그분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후에 마리아는 분명 자신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봉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두고 “좋은 몫”을 택한 사람이라고 단언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루카 10, 42) 모든 마음을 꺾어 보시는 예수님께서서는 두 자매 중 누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종종 마르타에게 감동 입이 되는 분들을 봅니다. 손님맞이에 분주할 때 도와주지 않고 알뜰하게 손님 발치에 앉아 노닥거리는 이들이 못마땅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기 식대료가 아닌, 주님의 식대로,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있지, 남들 일할 때 눈치 보며 일 안하는 것이 잘하는 것임을 말하는 데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루카 복음 6장 46~49절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천할 때 누구의 뜻을 실천하는지는 항상 중요합니다.

■ 염철호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jubo@catb.kr

9월 부산교구 혼인 강좌 안내

· 9.10(일) 14:00~17:50 · 가톨릭센터
참가비: 1쌍 4만원(선착순 50쌍) / 혼인강좌 교육부
사전 접수: 462-1870(당일 접수 받지 않음)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9월 행사

· 9.22(금) · 대구대교구 한터 성지 / 회비: 1만원
입금: 부산 041-01-027178-1 천주교부산교구
대상: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1번 이상 참석자
에 한하여 접수
신청: 9.8(금)까지(선착순), 팩스(629-8764) 및
홈페이지 / 문의: 629-8760(성소국)

부산교구 공원묘원 하늘공원

미사: 매주 토요일 11:00 3층 경당(서틀버스 운행)
09:00 남천동 교구청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문의: (055)374-8732~3(관리사무실)

대연성당 영어교실

기초반: 10:00~10:50 화/목반, 수/금반
중급반: 11:00~11:50 화/목반, 수/금반
회화반: 12:00~12:50 화/목반, 수/금반
· 9.1~10.31, 2개월 3만원 / 문의: 010-8501-9250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바로로 아람터 후원회 미사

· 8.28(월) 10:30 · 바로로아람터
문의: 514-6988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월미사 및 단원 모집

· 8.30(수) 19:30 · 망미성당
그레고리오성가에 관심있고 함께 활동하실 남성단원
문의: 010-7339-8545 / 단장: 김중민

선종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996.8.29. 김창문(요셉) 신부님

2017년 부산가톨릭신학원 2학기 심화과정 모집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시편 96.1)

제1주제 오늘 여기에서의 새로운 신학: 김중훈 신부(부산가톨릭대)
제2주제 성경 속에 숨겨진 여성의 체험들: 강은희 교수(부산가톨릭대)

기간 9.8(금)~12.1(금) 매주 금요일 14:00~17:00(총12회)

장소 부산가톨릭신학원(부곡동 부산가톨릭신학대학)

자격 신학원 졸업생 및 수도자 | 수업료 20만원(수도자 20% 할인)

접수 8.31(목) 까지 | 문의 051-464-7591(신학원 교무실)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교구 철야기도회(첫 금·토 신심미사)
· 9.1(금) 22:30~다음날 04:00
-젊은이 성령기도회
· 8.28(월) 19:30 전포성당
· 8.30(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후원회 월미사(버스: 안내카드 참조)
· 8.28(월) 11:00~14:30 / 점심 제공
-수요치유기도회(버스: 안내카드 참조)
· 8.30(수) 11:00 / 점심 제공
강사: 김순덕 자매(마산교구)

-교구 성령묵상회
제433차: 9.8(금) 19:00~10(일) 17:30
회비: 10만원(교재비: 5천원)

18:30 동래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회비를 미리 입금하셔야 정식 접수됩니다)
계좌: 농협 355-0003-3049-83 영성의집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울산 기도회
· 8.31(목) 20:00~23:00
강사: 박주병 형제(서울대교구)
-100단 묵주기도(미사, 안수) / 점심 제공
· 9.18(월) 09:00~17:00 울산 영성의 집

음악교육원 마니피아오르간반주단
파이프오르간연주회

· 8.27(일) 16:00 · 이기대성당
지도교수: 최영희
문의: 010-6513-7335, 517-8241~2

평신도선교사회

재학생과 동문의 만남 : 두번째 이야기

· 9.3(일) 14:00~17:00 · 신학원 대강당
특강교수: 엄철호 신부 / 대상: 신학생, 동문
문의: 462-0334(평신도선교사회)

부산성모병원 편의시설 임대사업자 모집

지하 1층 신라명과 전용면적: 42㎡(상호 변경가능)
계약기간: 협의 / 임대조건: 보증금 2억,
월세 50만원(임차 최저가) - 부가세 별도
입찰자격: 빵집임대 우선, 입찰자 직접 경영,
전전임대 불가 / 문의: 933-7033(총무팀)

주보 6, 7면 하단 광고 신청 접수

- ▶주보 게재 기간 2017년 10, 11, 12월(3개월)
▶신청 9.1(금)부터 선착순
▶접수 이메일 혹은 팩스(629-8756)
▶금액 1회 6만원(기본 3회 18만원)
▶서류 교적사본(본인) 혹은 본당신부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고 신청서
▶신청서 교구 홈페이지 '인터넷주보'에서
다운로드(www.catholicbusan.or.kr)
▶문의 629-8752 \* 광고 접수 기간
▶이메일 jubo@catb.kr 내 선착순 게재

Table with 5 columns: 서울공예사, 분도목공소, 대청동 (구)미문화원 맞은편 오민웅 (다미아노) 정신건강의학과, 하지정맥증점클리닉 길맥외과의원,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제이스 귀금속, 김용기내과의원, 제51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동국주단

6 · 연중 제2주일
9월 1일 : 기도문, 니바라도, 도나토, 레굴로, 레토, 로시오, 루포, 마르코, 베레나, 빅토리오, 빈도니오, 빈첸시오, 세쿰디노, 아우구스토, 아주토르, 안나, 암몬, 에지디오, 엘피디오, 여호수아, 카니온, 콘스탄티노, 탐마로, 테렌시아노, 펠릭스, 프리스코, 헤라클리오

**정하상바로영성관 피정**

· 9.8(금) 16:00~10(일) 14:00  
주제: 주님을 증거하는 삶 / 회비 : 12만원  
문의 : (055)383-3101

**농아인선교회 9월 수화 교실 개강**

신청 : 9.10(일)까지  
[기초반, 중급반] 개강 : 9.5(화) 19:00, 주 2회(화,목)  
3개월 과정 / 수강료 : 5만원(교재비 별도)  
[고급반] 개강 : 9.6(수) 19:00, 주 1회(수)  
3개월 과정 / 수강료 : 7만원(교재비 별도)  
· 부산가톨릭농아인선교회, 복지회 2층  
\* 수강 인원 정월 미달시 폐강 될 수도 있음  
문의 : 751-8693, 010-8001-4435(심은경)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생 모집**

[종교꽃예술전문가] 전례와 꽃예술(일반/최고지도자), 전례꽃예술 Meister  
[꽃예술] 기초생활꽃장식, 꽃과 스케치, 독일FDF Florist, 독일FDF FloristMeister, 원예테라피, 프레스플라워, 프리저브드플라워, 화훼장식기능사 국가자격증반, 화훼장식기사 국가자격증반  
접수 : 8.1(화)~8.31(목)  
개강 : 9.4(월)부터 과경별 해당요일  
**이론 그리기(기초반) 수강생 모집**  
교육 : 9.7~11.30(12주) 매주 목요일 14:00~17:00(주간), 19:00~21:00(야간)  
수강료 : 25만원(주간), 16만원(야간) / 재료비 별도  
각 반 수강인원 최대 10명, 개강당일 카드 결제 가능  
문의 : 510-0951~3, edu.cup.ac.kr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7층)**

용도 : 사무실(7층 20평)  
문의 : 462-1870(행정실)

**교육 · 모집 · 기타**

**행복한 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수강자 모집**

교육 : 9월~12월 매주 목요일 10:00~12:00  
· 알로이시오 힐링센터 교육실  
접수 : 8.21(월)~31(목), 선착순  
신청 : 알로이시오 힐링센터 홈페이지  
http://www.alhealingcenter.or.kr  
대상 : 미혼, 기혼의 성인남녀 / 문의 : 250-5209

**들꽃마을 부산 영성 강의 및 미사**

· 8.28(월) 14:00 / 문의 : (054)955-4133~4  
· 부산종합사회복지관(망미성당 옆)  
지도 : 최영배 신부(영성강의, 미사 주례)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 8.29(화) 14:00 · 서면성당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고해성사  
주례 : 구속주회 신부 / 문의 : 010-7132-6379

**한국의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9.1(금) 11:00 · 남천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예수성심의 우리 어머니와 함께하는 신심미사**

· 9.1(금) 14:00~17:00(미사 16:00)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시간, 강의, 미사)  
주례 : 미사와 치유 / 주례 : 김대선 신부  
· 성분도 은혜의집 / 문의 : (02)379-8091

**마음듣기 피정(침묵피정)**

· 9.9(토) 10:00~21:00 · 성심영성센터  
내용 : 마음돌보기, 면담, 치유기도  
문의 : 581-3114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 9.5~2018.2.25 매주 화요일 14:00~16:00  
야간 - 매주 화요일 19:00~21:00 (6개월)  
· 마리아 피정 센터 / 회비 : 15만원(분납 가능)  
우리은행 1006-301-276411 티없이신 성심  
문의 : 634-4845, 010-9620-4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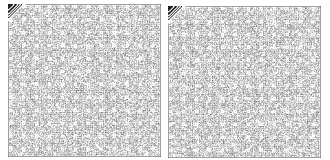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영양사 모집**

모집 : 9.4(월) 까지(조리가능자 우대)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 문의 : 253-1922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10.2(월)~14(토) · 로마, 루르드, 산티아고, 파타마 성모성지, 이태리, 스페인 순례 / 490만원 4석  
독일항공,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성공로반외방선교회	9.3(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02-924-3048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9.3(일) 14:00	부산 분원	010-6271-4110
한국의방선교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010-3777-4688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전교가르멜수녀회 재속회원 모집**

대상 : 수녀회 은사로 기도와 활동의 조화를 이루기 원하는 남녀교우(만 55세 미만), 성녀 테레사 묵상기도학교 수료자(만 60세 미만)  
첫모임 : 9.14(목), 9.23(토) / 문의 : 010-3867-8209

**청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무료 치유 피정**

· 9.1(금) 18:00~3(일) 15:00 / 무료 숙박  
문의(010-3798-5418) : 부산역(10:10)-서면우체국 12번 출구(10:20)-시청 건너 4번 출구(10:25)-동래 전철 3번 출구(10:50)-김해시청 건너(11:10)

**한티순교성지 피정**

[순교영성] 주제 : 최양업신부의 삶과 영성  
· 9.6(수) 10:00~16:00  
강사 : 김귀분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힐링피정] 주제 : 우리나라 웰빙과 힐링  
· 9.9(토) 16:00~10(일) 13:00  
강사 : 김정우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문의 : (054)975-5151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피정**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 강사 : 권민자 수녀  
3박4일 피정 : 9.14(목)~17(일), 10.12(목)~15(일)  
8박9일 피정 : 9.19(화)~27(수), 10.18(수)~26(목)  
문의 : 010-4906-5722, (031)953-6932

**양업고등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대상 : 중학교 졸업(예정) 및 그에 준하는 학력 소유자 / 원서접수 : 9.11(월)~26(화)  
문의 : (043)260-5076, 5078, yangeob.hs.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입양 및 미혼모 상담(국내 입양 전문)  
문의 : (02)764-4741~3, www.holyfcac.or.kr

**인간존중 · 생명사랑 정신을 구현하는**  
**부산가톨릭대학교 학과 안내**  
상담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회복지상담학과**  
www.cup.ac.kr

**메리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 대상 : 60세 이하  
- 최근 1년 이내 사별 경험이 있는 분 제외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수하신 분 (필요에 따라 상담 후 조절가능)  
\* 모집 마감 : 9.15(금) 까지  
문의 : 461-2265(담당 수녀), 461-2709(사회복지사)

**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행복한 세상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역사전시회  
**1987 우리들의 이야기**  
일시: 9/9(토)~28(목) 10:00~18:00  
장소: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월요일 휴관)  
1987년 당시를 살았던 다양한 인물들의 사진, 영상기록물 전시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b>요양보호사</b> <b>국비교육생 모집</b> 직무교육 모집 818-1004, 245-1004 전사요양보호사교육원</p>	<p>재활전문 요양병원 <b>좋은애인요양병원</b>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진료적정성평가 1등급 간호사 및 간병인 비율 부산최고 뇌졸중 / 중풍 / 통증 / 척추손상 재활치료 말기암 호스피스, 내/외과계 한방협진 안락로타리 봉생병원 옆 T. 520-7700</p>	<p><b>동래로타리</b> <b>독일보청기</b>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 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p>	<p>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b>성모치과</b> 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p>	<p><b>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의</b> 류마티스,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의학박사: 박인호(후카), 한정문 소화기 내과: 최병택, 유원희, 남화성 류마티스 내과: 서수홍(라파엘) 영상의학과: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겸직: 이우희 하단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b>208-5566</b></p>
<p><b>뉴옥스마일</b> <b>교정전문치과</b> 박 현 정(마리아) ABO공인, 미국교정전문의원 비수술 주걱턱, 인면비대칭 립톤 돌출입 어린이 주걱턱 <b>702-6677</b></p>	<p><b>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b> <b>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b>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 · 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아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아네스)</p>	<p>50년 전통 <b>명신당</b> 목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옥(바로로) 김영란(제노베파) <b>646-7885</b> <b>010-3599-7885</b> 부산은행 범일점 맞은편</p>	<p><b>동부증권</b> 개인금융 및 법인금융 탐장. 정 기 준(프란치스코) <b>241-5454, 010-3186-3897</b> 센텀시티역 2번 출구</p>	<p><b>광명재가노인복지센터</b> 방문요양, 방문목욕 만 65세 이상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가족처럼 정성껏 돌봐 드립니다. <b>요양보호사 모집, 교우분 우대</b> 감 총 관(토마스), 김 태 순(안젤라) <b>752-6516, 010-7597-9264</b></p>